

도교육청, 방과후마을학교 운영 '호응'

다도·디베이트·숲탐사 등 72개 프로그램 운영 1500여명 학생들 참여

참여 학생 850명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89.1% 만족

전북도교육청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교육관련 단체(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과후마을학교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교육청은 지난해 방과후 마을학교 성과분석 자료를 내고 13개 교육지원청에서 31개 기관(단체)을 공모해 다도, 디베이트, 숲탐사 등 7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1,5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참여 학생 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1%가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만족하다는 답변이 50.6%에 달했다.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장소와 환경에 대해서도 86.7%가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86.8% △강사진 89.1% 만족도를 보였다.

방과후 마을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더 높았다.

학부모 627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운영 전반 92.8% △프로그램 구성 92.3% △강사진 94.4%의 만족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방과후 마을학교



지혜의 반찬 성금 전달

전주에서 촬영중인 영화 대장 김창수의 이원태감독과 배우 조진웅씨가 16일 전주영화진흥조합촬영소에서 지혜의 반찬 성금 백만원을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에 총 1억3,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1억1,000만원이 강사비로 지원돼 148명의 강사들이 활동하는 등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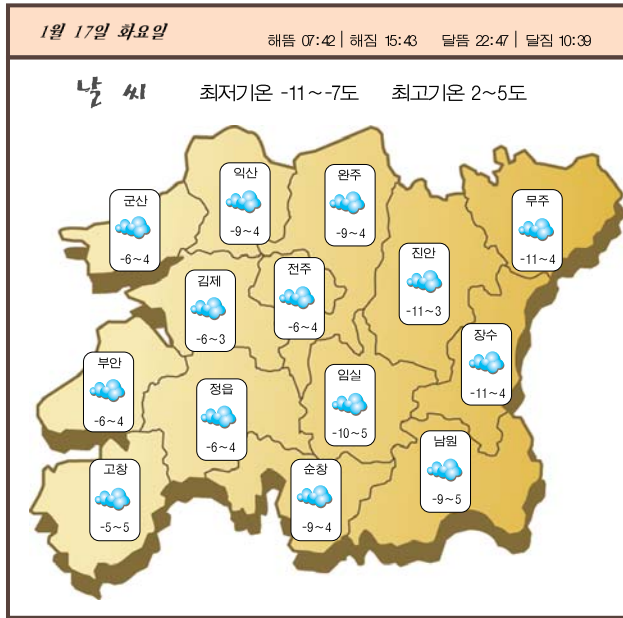
한편 방과후 마을학교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했으며 31개 기관

에서 총 72개 프로그램, 총 1,327회 진행했다. 방과후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현황을 보면 전주가 동화나래연구소 등 3개 단체, 군산은 욱구현교 등 4개 기관, 익산은 부승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 등이다.

△정읍 태산교육협동조합 등 3곳 △

남원 남원사회복지관 등 2곳 △김제, 김제문화원 등 2곳 △진안, 진안YMCA 등 3곳 △무주, 청소년수련관 등 2곳 △임실, 임실YMCA 등 2곳 △순창, 웅기체험관 등 2곳 △고창 국악예술단 고창 등 3곳 △부안 수주문화센터 1곳 등이다.

/정혜은기자



2017년 학교현장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예산 사업의 제안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2017년 학교현장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도교육청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일반인 등 전폭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대상 사업은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예산 사업(학교 집행 사업)이며 단위학교에서 시행되지 않는 참신한 내용의 사업은 심사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다만 △단순 교육시설 및 시설설비 지원 예산사업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단순한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사회적 이익을 위한 사업, △자산취득성(약기, 컴퓨터 등)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 △사회적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제안사업 제출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우편, 방문접수 등을 통해 제안하면 된다. 공모 기간에 접수된 제안사업은 예비심사를 통해 대상사업 분야별 2배수 이내를 선정한 뒤 4월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및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하여 최종 40여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당 1,500만원 이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사업 제안자 및 사업추진 우수 교직원에게는 교육감상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해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에는 학생 20건, 학부모 39건, 교직원 및 주민 54건 등 총 113건이 접수됐으며, 예비심사에서 50개 사업을 선정한 뒤 온라인 및 모바일 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43개 사업을 선정했다.

/정혜은기자

전주시, 시민생활권 곳곳 공공체육시설 마련

색장동 426번지 일원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내년 평화동·송천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활권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그간 마땅한 체육시설이 없었던 전주시 동남권 지역에는 처음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인 축구장이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공공체육시설이 열렸던 동남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총 공사비 46억원을 들여 색장동 426번지 일원에 국제규격(68mX105m)을 갖춘 인조잔디 축구장 1면과 관리실, 화장실, 샤워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동남권 생활축구장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축구장은 기존 축구장보다 여유 폭(4~5m)이 넓은 국제규격의 축구장으로 지어졌으며, 인조잔디 하부에 탄성패드가 설치돼 축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했다.

또한 시는 축구장 진입로가 전주~남원간 주요 진출입로인 춘향로에 접해있는 만큼 도로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급적 차로를 설치하고,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확보했다.

시는 동남권에 생활축구장이 완공되면서 그간 체육활동에서 소외됐던 인근지역 주민들과 전주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건전한 스포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의 생활권 가까운 곳에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평화동에는 오는 2018년까지 시민들의 실내체육활동 등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으로, 시는 현재 설계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송천동에 위치한 인라인롤러장 인근에는 국민체육기금 50억원 등 총 91억여원을 들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주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다목적 체육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전미동에는 U-20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

도록 몸을 풀고, 팀 전술 및 개인 기술훈련을 할 수 있는 U-20월드컵 훈련장이 조성된다.

이 축구장은 총 8,214㎡ 부지에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장(105x68m)과 조명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시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만간 중앙 투융자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복합문화체육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시 곳곳에 생활체육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구축되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여가생활로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남권 생활축구장의 공식명칭을 명칭제정위원회를 통해 제정한 후 시설을 본격 개장할 예정이다.

개장 후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위탁해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맡길 예정이다.

/김영재기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도교육청 홈페이지 안내

전북도교육청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자세한 선발 분야 및 인원과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는 2월 말~3월 초에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올해 원서접수는 4월 중, 필기시험

은 6월 17일 실시되며 면접시험은 7~8월에, 합격자 발표는 8~9월에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연초에 시험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며 "향후 시험 운영 준비 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나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은기자

